

# 요약

---

## 여행자 체류세는 관광세로 숙박업소 이용자에 부과

여행자 체류세금은 관광세(Tourism Tax)의 일종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. 미국, 일본, 유럽 등 대부분의 주요 관광 국은 이미 여행자 체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, 과세표준에 따라 '종가세'와 '종량세'로 구분된다.

종가세를 적용하여 서울시 여행자 체류세에 대한 세수 효과를 추정하면, 시나리오별로 약 874억 원에서 988억 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.<sup>1</sup> 반면, 종량세 방식으로 추정했을 때에는 약 176.2억 원에서 358.1억 원으로 추산된다.

이에 따라, 여행자 체류세의 도입은 세수 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.

## 레저세 과세범위 확대해 여행자 체류세 도입해야

현 시점에서 여행자 체류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레저세의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숙박 행위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보인다. 즉, 「관광진흥법」에 규정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이용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용 요금의 일정률을 여행자 체류세로 징수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.

결론적으로, 여행자 체류세 신설 여건이 불투명한 실정에서 숙박업소의 이용 행위에 대한 과세는 포괄적 레저세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.

---

<sup>1</sup> 서울은 5%로 가정함

## 01 /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관광세

### 1\_관광세는 지방세 안정성·신장성에 이바지

관광세는 “관광행위를 통해 직접 편익을 향유하면서 해당 지역에 각종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관광객에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그 비용이 지역주민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조세”<sup>2</sup>라고 정의할 수 있다.

관광세의 일종인 여행자 체류세는 과세대상을 숙박업소로 한정하는 것으로 미국, 일본, 프랑스 등 주요 관광국은 이미 부과 중이다.

#### 수익자부담 원칙에 충실...선진국선 조세저항도 적어

관광세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비교적 충실하면서 과세대상인 관광행위가 일반적으로 소득 탄력적으로 볼 수 있어 지방세의 안정성과 신장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. 외국에서는 다른 조세에 비하여 관광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적으며, 관광객이 주로 세를 부담하므로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세의 도입을 선호하기도 한다.<sup>3</sup>

### 2\_‘지방자치 필수요소’ 지방재정 확충 기반 마련

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교부세와 같은 이전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자주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.<sup>4</sup> 현재, 지방세는 지방소득세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수 중 재산세 비중이 과다하여 세수의 신장성과 탄력성이 국세에 비하여 열등한 상태이다.<sup>5</sup>

---

<sup>2</sup> 박경환, 1997, “지방세로서 관광세 도입 효과”,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

<sup>3</sup> Kim, Bae and Eger, 2009, Is Local Discretionary Sales Tax Adopted to Counteract Fiscal Stress? The Case of Florida Counties,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, Vol. 23, No.2

<sup>4</sup>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구조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 비중이 전체 세입의 45.9%(2014년 당초예산 기준)수준으로 자주재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임

### 교부세 등 이전재원으로 한계...미국선 대체세원 개발 활발

미국은 재산세를 대체할 수 있는 세원의 개발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는데, 대표적인 예가 토지에 관련된 지방개발세(Local Impact Fee)나 지방판매세(Local Sales Tax) 등이며 각 지방정부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맞추어 이러한 대체적 세제를 도입하였다.

## 3\_ '지역경제 활성화·관광인프라 개발' 재원 조달

관광자원은 에너지 자원이나 타 시설보다 비교적 덜 소모적이고 재생산이 쉽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. 숙박업소도 유지관리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고, 리노베이션이 용이함에 따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.

### 외부효과 유발 관광객에 과세는 응익원칙상 바람직

다만,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효과(쓰레기, 하수 등)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. 따라서 외부효과를 유발한 관광객에게 관광세를 부과하는 것은 응익성의 원칙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.

관광세 수입은 관광자원뿐 아니라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, 즉 도로, 통신 등 사회 인프라 시설 등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. 관광산업은 단순히 관광자원이 잘 개발되어 있다고 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접근성 확보가 중요하며 인프라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비로소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. 이는 관광세를 목적세의 형태로 징수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와 일맥상통하고 있다.

---

<sup>5</sup>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 중 재산세 성격의 세목(재산세, 자동차세, 취득세)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3.5%로 소득과세(지방소득세)가 차지하는 비중(31.9%)보다 높음. 또한, 재산과세는 부동산 경기변동에 민감한 반면, 경기활성화 등에 의한 세수의 소득·소비탄력성은 상대적으로 낮음